

#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A형)

## 출제 의도

본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능력과 글쓰기, 논증적 사고 및 비판적 사고 능력, 주어진 문제의 맥락에 맞게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문항 1>은 제시문 (가)의 내용에서 과거와 현대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히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식 생산 메커니즘’의 시대적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시대에 따른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변화 및 그 지식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의 변화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텍스트 독해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문항 2>는 교과서의 순기능을 주장한 제시문 (다)를 논증적으로 분석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에서 교과서가 사회를 이해하는 공식적 지식 체계이고 지식 재발견의 낭비를 줄여주므로 교과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논증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논거를 찾아 (다)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가)에서는 기존의 공식적 지식 체계가 집단 지성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논거를, (나)에서는 지식은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 발전한다는 논거를 찾아내야 한다. 이 문항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인 글에서도 반박 논거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이 필요하다.

##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이도영 외	창비	2014	22	제시문(가)	x
국어II	조현설 외	해냄 에듀	2014	142-143	제시문(나)	x
독서와 문법	이관규 외	비상 교육	2014	158-159	제시문(다)	x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기준표(인문계열 A형)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분석 및 이해력(차이점 서술)		140	200	600
	표현력		30		
	정서법		30		
2번 대문항	이해력(요약)		100	400	
	비판적 사고력	(가) 활용 비판	100		
		(나) 활용 비판	100		
	구성력		40		
	표현력		30		
	정서법		30		

#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A형)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과거와 현대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과 관련된 차이점을 모두 기술 하시오. (200점, 400 ~ 500자)

지식 생산 메커니즘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에는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할 권한을 지녔고, 주로 책을 서술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통해 지식을 생산했다. 반면 대중은 전문가가 생산한 지식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소비자에 불과했다. 설사 대중이 지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그들의 지식은 저평가되거나 무용하다고 여겨졌다.

이와 달리, 현대에는 일반 대중이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집단 지성이 출현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대중이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잘못된 정보를 검증하거나 수정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 집단 지성의 출현으로 대중은 지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었고, 그들의 지식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다.

2.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다)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400점, 1,100 ~ 1,200자)

제시문 (다)는 공식적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교과서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이미 발견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지식 재발견의 낭비를 줄여준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장점들이 교과서가 지닐 수 있는 편향과 억압의 위험성보다 훨씬 큰 것이므로 교과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의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고 교과서의 한계도 명확해졌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과거에는 지식이 특정한 분야에 축적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만 생산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의 향상과 정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일반인도 지식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며 궁극적으로 지식의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 지성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교과서와 같이 특정한 전문가가 생산한 공식적 지식 체계는 집단 지성이 생산한 새로운 지식 체계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지식에 대한 질문과 비판은 필수적이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공자도 제자들의 질문과 비판에 보충 설명을 하며 소통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의 범위나 사상의 틀을 더욱 견고하게 하거나 확장할 수 있었다. 공자의 '공자됨'은 이와 같이 소통을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단련을 통해 완성된 것이다. 정보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지적 소통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교과서는 이미 발견한 지식을 정리한 지식 체계여서, 기존 지식에 대한 쌍방향의 소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 또한 공식적 지식 체계라는 성격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문이나 비판 역시 쉽지 않다.

과거에는 공식적 지식 체계인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대 사회에는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 지식 생산 메커니즘의 변화에 맞추어,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나 교육 부문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